

◎ 2003년 교회표어 ◎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함줄함울

(준비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43 호 / 발행일 : 2003년 5월 11일

학부모 및 교사를 위한 세미나

2개월의 장정을 마치고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세미나’가 3월 4일부터 시작하여 2개월 간의 여정을 마치고 4월 29일 드디어 막을 내렸다.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100여명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하였고, 2개월이라는 기간이 긴 것 같아 부담도 되었지만 매주 열강하는 강사님들을 통해 도전도 받고, 또한 다시 한 번 교사의 귀함을 확인받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4월 29일 졸업식에는 48명의 수료자(신입교사)와 35명의 개근자를 배출했으며, 문동학 목사의 강의와 더불어 섹스폰 연주는 담임목사와 성도들간의 거리를 한층 가깝게 해주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세미나를 준비하신 김현령 전도사와 교육전도사들의 수고로 인해 교사들이 한층 더 성숙한 교사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특히 기존에 수료하신 교사들) 참여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세미나 때마다 간식을 준비한 귀한 손길, 졸업식을 빛낸 김집사의 케익, 풍선으로 장식해 주신 유집사, 세미나 내내 도와준 모든 분들의 수고로 인해 세미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제 좋은 양분을 공급받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적용하며 헌신할 때 교회와 사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 최재경 기자



무지개축제를
기다리며

군선교부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 군선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없는 황금어장

지난 4월 6일(주일) 오후 3시, 2부 예배를 마치고 문화선교위원회 위원장 최창섭 장로의 인솔로 군선교부 16명, 드라마부 12명의 교우들이 서부 전선에 위치한 사단 불무리교회와 신병교육대 햇불교회에 위문예배와 공연을 다녀왔다.

예배시 군선교부원들의 찬양과 최창섭 장로의 군생활시 체험한 신앙간증, 신재숙 권사의 찬양의 순서가 있었고, 드라마부에서 준비한 ‘김완악 씨의 삶과 죽음’이라는 성극을 통하여 신앙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분단된 조국을 지키려고 힘들게 훈련하는 장병을 위문하며, 25년된 그

곳 교회의 내부 개축을 위한 약간의 지원금을 전해 드리고 준비해간 간식도 함께 나누었다.

청년의 시절에 겪어야 하는 군대생활은 무척 외롭고 힘든 고난의 시간일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더 없는 좋은 기회이며 시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이 되면 이런 전도의 기회는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황금어장에 주님의 지시대로 그물을 던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선교 교육(매월), 방문 위문예배(분기별), 사랑의 양육(미래

출석교인), 군입대 교인자녀 양육, 청년을 위한 비전캠프, 시니어 합창연습(매주일 오후 2시 30분, 6층 찬양연습실 양육 준비, 찬양 등 선교를 위한 모임)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군선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선교에 관심과 뜻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실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항상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 이종석 기자

‘실버합창단’ 창단



지난 4월 27일 3부예배 후 5층 찬양연습실에서 실버합창단이 창단되었다. 제1남선교회 회원을 주축으로 1944년 이전 출생의 남녀 100여 성도가 참여하여 합창단을 조직하였다. 제1남선교회 회장인 엄주청 안수집사를 대장으로, 신정웅 집사를 총무로

선출하였고, 지휘는 김주봉 집사가 맡기로 하였다. 창단식에 참석한 문동학 담임목사는 “체력으로 하는 봉사보다 영성을 일깨우고 영혼을 전하는 봉사가 더 중요하며, 출발은 미미하나 결과는 창대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슈만의 이중창의 밤

봄밤에 황홀한 음악회가 5월 11일(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전당 리스아틀리움에서 열린다.

주님의교회 음악부장 이단열 집사(성신여대 음대교수)와 시온찬양대 소프라노 솔리스트 한나숙 집사(성결

교 신학대학)가 출연할 예정이다. ‘사랑의 정원’ ‘연인의 세레나데’ ‘그대를 생각하오’ ‘봄의 축제는 아름다워’ ‘결혼식 만찬’ 등으로 이어지게 될 곡들은 독일 낭만파 가곡의 정수로 열정과 우수가 깃들여진 노래들이다. 피아노를 바탕으로 한 가곡이기 때문에 반주는 한영혜(경원대 겸임교수)씨가 맡는다.

김미숙 집사의 '사명' 보기

신광모자(자립)원은 군산지역에 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에 주택무료임대, 기본생계비 지급, 자립기반 조성, 상담, 생활환경을 개선, 자녀양육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신광모자원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인성재단이며 2003년 1월 1일 김미숙(3·5구역)집사가 신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신광모자원(군산시 나운2동 1242-9, www.mojawon.com)은 1957년 6월 21일에 설립되었으며 건물 11동(932.28평), 토지 15필지(14,423.71평)로 이루어졌다.

현재 29세대(정원 39세대) 76명, 자립원은 21세대(정원 24세대) 54명이 살고 있어서 아직 더 많은 저소득 모자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김미숙 집사는 모자시설의 존재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 한 가정이라도 더 이 시설을 이용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인성재단에서는 신광모자(자립)원 가정에 성경을 보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려 한다. 또한 기독교 서적이거나 찬양테이프 등의 기증을 받고 있으며 교회나 구역모임의 후원도 환영한다. 모자원의 어느 어머니의 글이다.

“모자원에 입소하여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여기에서 살지 않았으면 먹고 사는 데 더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그 지나온 기간 동안 넓은 집이 부럽지 않았고 살림살이도 참 많이 늘었다. 가끔씩 게으름을 피려고 누워있다 보면 혜택을 받고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하여 전세라도 얻어서 나갈 기반을 잡아야지 하는 생각을 문득 하며 벌떡 일어나서 서곤 한다.”

김미숙 집사의 선친께서 모자원을 설립하였는데 설립동기로 ‘평소 가정에 관심이 많아 아버지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려 하신 것 같다’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복지가 노

인이나 장애인에 치중되어 있어 모자원의 존재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알리고 싶었다며 모자원은 ‘아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 곳’이라고 중요성을 밝혔다.

직접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만든 김미숙 집사는 ‘일을 먼저 하다보면 후원금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모자원을 알리는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에 있는 모자원은 6개월 정도 대기해야 입소할 수 있지만 신광모자원은 서울에 있는 어려운 가정을 당장 받아들일 수 있다고 소개하며 그러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한다.

김미숙 집사가 담당한 모자원이 많은 불우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후원이나 입소를 원한다면 전화 (063) 462-7749로 연락하면 된다.

/ 신지민 기자

▶ 아래의 글은 지난 교사세미나 시간에 발표되었던 담임목사의 주님의교회 비전 중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주님의교회의 비전

주님의교회의 비전은 3개의 ‘무’(無, Negatives)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을 3개의 ‘유’(有, Positives)로 성숙시키면 첫 번째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자체 건물 무소유’에서 ‘크리스천의 대안적 공동체 건설’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이다. 건물은 예배와 기타 집회의 장소일뿐 건물 자체가 교회 아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촉매제 또는 구심체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 그래서 무소유의 주님의교회는 공동체에 대한 물리적인 구심점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공동체 건축(Community Build-up)에 초점과 에너지를 가해야 한다. 공동체 건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목회적 강조점이 필요할 것이다.

1) 구역모임을 공동체 build-up의 거점으로!

현재의 구역모임을 ‘전인적인 소그룹’(holistic small-group)으로 전환, 발전시켜 나간다. ‘전인적’이라 함은 ‘성경공부’, ‘제자화’, ‘치유 또는 회복을 위한 소그룹’, ‘새신자 관리 및 교인 출석 감독’등 한 개 또는 몇 개의 목적으로 관리, 통제되는 구역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되 더 나아가 ‘가족’, ‘이웃’, ‘생활 공동체’

의 특성을 더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①구역 지도자 교육 ②구역모임 교재 개발 ③공동체적 구역모임 격려(문화체육활동과 함께 영적인 상부상조) ④연합구역활동 장려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2) 구역활동의 장려를 위해서는

수요성경공부에 몇 개의 구역이 연합으로 ‘특별찬양’(워십댄스, 드라마, 연주 등)을 하고 교구대향 또는 전교인 운동회, 교구별 영적 수련회, 구역별 리트릿 또는 out-reach등을 장려한다.

‘주일예배’,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새벽기도회’, ‘각종 교육’등은 ‘교회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또는 중형 모임이고 ‘구역모임’, ‘구역의 문화체육활동’등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소형 모임이다.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주일예배와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교회의 두 날개이다(행 2:46; 20:20). 사도적 교회의 두 날개는 ‘집에서 모이는 모임’(Cell)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Celebration)이다. 다른 사역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될 수도 있다.

2. ‘무기명 헌금’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義) 사역’(‘낙헌제’, 시편 54:6)으로!

성도들이 각각 은사대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격려한다.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는 ‘은사 중심의 사역’(Gift-oriented ministry)을 강조한다.

3. 50/50 원칙을 ‘사역의 집중’으로!

교회학을 위하여 헌금의 50%를 사용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그 50%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 50%의 50%(즉, 예산의 25%)는 특별한 사역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사역한다. 교회 출석하는 전문인들이 교회에서 은사별로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좋은 책 읽기 모임

크리스천의 삶에서의 교제는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더구나 좋은 신앙서적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교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노정에서 시원한 샘물과도 같은 위로가 될 것이다.

『좋은 책 읽기 모임』(이하 ‘좋은 모임’)은 그런 동기에서 작년에 시작되었다. 『좋은 모임』은 영의 양식에 유익한 책을 매달 의견을 모아 정하고, 그 책을 한 달 동안 읽고 묵상한 다음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그것을 나눈다. 대체로 매달 두 번째 주일에 모이는데, 교회 사정에 따라서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올해 ‘좋은 모임’에는 큰 기쁨이 생겼다. 5층 도서실에 전용 공간이 생긴

구역모임의 7가지 원칙

① 비밀을 지켜야 한다.

구역원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구역모임시에 알게 된 내용 중 상처가 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의도일지라도 안된다.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② 책임을 받아들이야 한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 우리 사회를 비난하지 말라. 서로 탓하지 말라. 희생자의 피해의식을 버려야 한다. 나의 책임, 나의 결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야 한다.

③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상황에 대해서 거부, 정죄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④ 서로 존중해주라.

무시하지 말고, 가르치려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질책하지 말라. 지방방송은 자제하자. 말을 가로채면 안된다. 훈계는 좋지 않다. 이야기를 한 두 사람이 독점하지 말라. 다른 사람도 나만큼 분별력이 있음을 믿고 존중해주라.

⑤ 가면을 벗고 진실하라.

무엇인 척하지 말라. 무엇인 체하지 말라. 가면을 벗어야 한다.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공허해진다.

⑥ 열린 마음을 갖자.

모두가 미완성임을 인정하자. 과거를 묻지 말라.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서로를 대하자. 聖化(Santification)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자.

⑦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격려하라. ‘어쭈구리’와 같은 말은 삼가해야 한다.

것이다. 그 동안 교회의 좁은 공간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도 기쁨(?)을 누렸던 회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은 작지만 간절했던 바람이었다. 이번 달부터 오는 분들은 이 기쁨을 처음부터 누릴 수가 있다.

‘좋은 모임’에는 성인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책을 읽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면 무조건 환영한다.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없이 그저 소박한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한 모임이다.

5월의 ‘좋은 모임’은 18일 오전 11시에 모인다. 모이는 장소는 오봇하고 전망이 너무나도 좋은 5층 도서실이다. 이번 달에 나눌 책은 「CEO 예수」이다. 선정된 책은 교회 사무실에 가면 할인된 가격에 언제나 구입할 수 있다.

안수집사회

‘산상기도회’



고난주간을 맞아 안수집사회에서는 4월 12일(토) 청평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회를 가졌다. 봄산행을 겸한 기도회로 모였으나 화야산 등반계획은 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입산금지가 되는 바람에 취소되었다.

하승락 회장과 참가자 열 두 명은 먼저 국가안보와 국가경제를 위한 간곡한 기도를 드렸고, 이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안수집사들의 봉사와 섬김을 의논했다.

점심시간에는 친교와 푸짐한 음식으로 함께 했는데 조일송 집사(송경녀 권사)가 만들어온 한국전통식혜는 그 맛이 일품이었다.

식사 후에는 한득현 집사(서기)의 안내를 받으며 양수리 강변을 거닐면서 그간 각자의 근황과 신앙생활에 대한 담소를 나누며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렸다. / 이종석 기자

기독교용어시리즈 3

교회용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법상의 문제가 있다. 즉 2인칭 존칭 명사에 호격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2인칭 존칭 명사에 호격 조사가 붙지 못한다. 2인칭에는 존칭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호격 조사 ‘~야’나 ‘~아’가 붙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친구 사이나 아랫사람에게는 ‘복동야’, ‘철수야’와 같이 부를 수 있지만 손윗사람에게는 호격 조사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아버님이시여’ ‘할아버님이시여’라 부르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존칭의 2인칭이 되기 때문에 이미 사어가 된 ‘~이여’, ‘~이시여’를 붙여서는 안되고 그저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 해야 옳다.

(기독교용어연구회 제공자료)

성지순례시리즈 3

자미와 코란 그리고 축구...

가로등 불빛에 언뜻 보이는 가지안텔의 집들은 ‘가난’을 읽기에 충분했다. 아주 낡고 어두운 모습들이 가슴 아리게 다가오는데 갑자기 환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도시의 모든 지역이 다 어두운데 단 한 곳만 환하게 불이 밝혀 있는 곳, 바로 축구 경기장이었다!

겨울 자정 시각에 경기장에 환히 불을 밝히고 진지하게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긴 비행 시간에 지친 눈에 인상 깊다.

먼 옛날, 고구려와 동맹 관계였던 돌궐족의 후예요, 중앙아시아를 달리던 투르크 전사들의 전설을 간직하면서 오스만투르크의 항수에 젖어있는 이들에게 축구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첫날 묵었던 TILMEN 호텔은 생각보다 쾌적하고 깨끗했다. 아침에 잠깐 목상을 하고 있는데, 6시가 채 안된 미명에 밖에서 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자미¹⁾에서 코란을 읽는 소리가 전 시가지에 들리도록 커다랗게 울린다. 갑자기 느낌이 묘해졌다.

무심코 열어본 서랍에 책이 있어 들춰보니 성경대신 코란이었다. 코란은 구세대를 위한 옛 아랍 문자와 신세대를 위한 현대식 터키 문자로 나란히 쓰여져 있었다. 갑자기 이슬람의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영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가 있는 시간과 공간이 어디인가? 내가 있는 곳은 사도 바울 시대의 수리아 지역이 아니었다. 나는 ‘오늘날’의 ‘터키 땅’에 와 있는 것이다!

/ 하화주 집사

1) 자미: 회교식 사원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장학위원회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생활이 어려워 등록금을 내기 힘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그중에 정신학원에 다니는 몇몇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교회로 예쁜 편지들을 보내왔다. 지면상 내용을 다 실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간추려 교우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언제나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주시니 감사해요. 제가 너무 걱정하니까 주님이 제 걱정을 덜어주신 것 같아 주님께도 감사하구요. 주님을 알고 나서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고 기도드리면 마음도 참 편해져요. 이제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이 아이에게 잘 됐어!’라는 생각이 드시게 해야겠지요? 기도해주세요. 열심히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고3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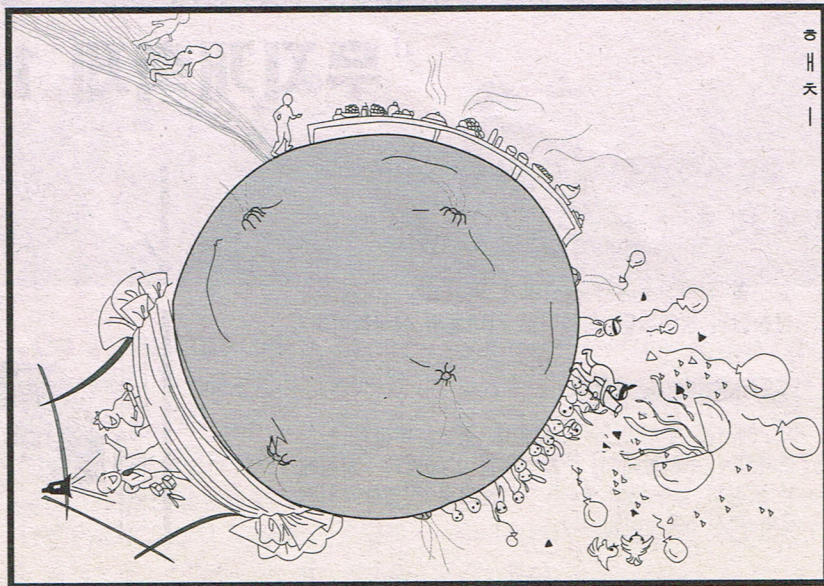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장학생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학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빠는 사업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른 일에 종사하고 계시고, 저의 꿈은 작가였는데 자유롭게 취재를 하러 다니는 것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진로를 그 쪽으로 바꾸었어요.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리라 믿어요. 힘든 고3이지만 이렇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 더 힘을 내 좋은 결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느 고3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마천동에 살며 집앞의 베엘교회에 다니고 있습

니다. 패션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어서 미술학원도 다니고 있지요. 옷에 대해 지식은 없지만 흥미가 있고 만들기를 좋아하거든요. 무엇인가 열심히 집중하는 모습은 좋아보여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도록 노력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고2학생)

▷저의 취미는 음악듣기와 영화보는 것이고요,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저의 꿈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건강해야지만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늘 튼튼해 보이던 아빠가 TV에서만 들어본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셔서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웃으시는 모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살겠어요. 힘들 때는 신앙심으로 이겨낼 거예요. 장학금 감사합니다. (어느 고2학생)

/ 김영미 기자



『무지개축제』는 이렇게 열립니다

교회소식

▶1부 - 한가족의 장(오전 11시 ~ 오후 2시)

개요	먹거리장터 / 놀이마당 / 축제마당
내용	• 구역별식사 / 먹거리장터 • 놀이마당 : 천사와 씨름, 아빠와 망치, 사탄팡, 복음의 다트, 다윗과 골리앗, 왕발 멀리차기, 복음의 축구왕, 선교월드컵, 바다야 잠잠하라, 성경번지런, 성령의 열매, 나도 농구왕 • 축제마당 : 기린바운스, 축구돌바운스, 돌고래바운스, 보트바운스, 기차바운스, 악어바운스, 볼풀장, 폴라로이드사진촬영, 페이스페인팅, 캐릭터연출, 키타리아저씨
장소	• 강당주변, 운동장
진행담당	• 먹거리마당 / 장터 : 각 교구에서 준비바랍니다. • 놀이마당 / 축제마당 :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교구별 식사장소를 찾아 점심식사를 합니다 / 먹거리장터에서 사먹을 수도 있습니다 / 먹다가 놀아도 좋고요, 놀다가 먹어도 좋습니다.

▶2부 - 한마음의 장(오후 2시 ~ 4시)

팀구성	팀칼라	교구	비고
한마음팀	백색	청년1부, 1, 2, 3, 4교구 외국인근로자1팀	• 흰색 상의 T셔츠를 착용합니다. • 순결한 주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한가족팀	적색	청년2부, 5, 6, 7, 8교구 외국인근로자2팀	• 붉은색 상의 T셔츠를 착용합니다. •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 진행부의 진행을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도 교회학교 부서별로 준비합니다.

▶3부 - 공개방송(오후 4시 ~ 5시 30분)

프로그램명	'최인혁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 기독교방송(CH42)
자리정리	운동장에 마련된 무대 앞에 자유스럽게 앉습니다.
축하공연	CCM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무지개페스티벌	주님의교회를 대표하여 4개팀이 출연합니다.
CCM콘서트	박강성, 위드, 조수아, PK, 유행기 등 (출연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어울마당	전교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놀아봅시다.

▶입교, 세례식

입교식,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 및 세례식은 6월 4일(수) 오후 8시에 중예배실에서 있으며, 입교 및 세례자 3, 4차 교육이 5월 11일, 18일 오후 1시 15분부터 2시까지 3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은 6월 1일(주일) 오후 1시 15분에 2층 중고수련실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입교 및 세례 2, 3차 교육은 5월 11일, 18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이며, 주보를 참조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의 개편작업에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보다 좋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진행중입니다. 교우들의 양해를 바라며, 홈페이지 주소가 www.pcltv.org로 변경된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설교방송 안내

문동학 담임목사의 주일설교를 방영하는 www.cctn.tv(기독교tv)의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www.cts.tv의 '설교방송' 코너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역자모집

▶결혼사역팀 모집

결혼예식 사역지원팀에서 방송, 음향, 조명, 영상, 안내 등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박의일 전도사(011-334-4076)에게 연락바랍니다.

▶영상미디어사역자 모집

영상미디어부에서 비디오카메라 촬영 및 사진카메라 촬영으로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이창현 목사(011-466-4736)에게 연락바랍니다.

▶맥킨토시 기능자 모집

함글함글 편집부에서 맥킨토시 및 Quark작업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이창현 목사(011-466-4736)에게 연락바랍니다.

▶그래픽디자이너 모집

기획부에서 그래픽디자이너 작업을 위하여 홍보기획 및 출판업에 종사하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김원재 목사(019-357-9861)에게 연락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주님의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 문동학
- 부목사 : 김병모, 김성관, 김원재, 윤덕영, 이상훈, 이창현, 정현희, 정희성
- 전임전도사 : 김현령, 박의일
- 교육전도사 : 고승재, 김보선, 김진경, 유상열, 이영란, 최인영, 추정순, 황병기
- 시무장로 :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윤좌원, 전세표, 이병식, 최창섭, 박시만, 황기연, 김현덕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

◆기사제보안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글함글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핸드폰 : 011-466-4736

▶이메일 : chylee@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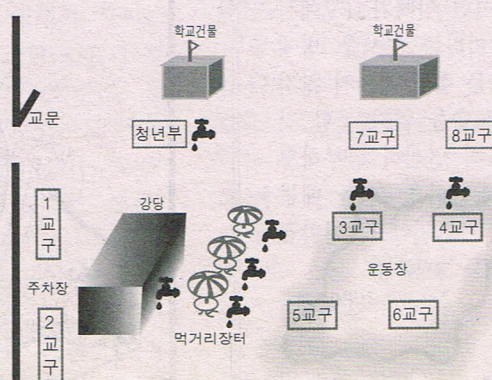
"무지개축제 100% 즐기는 법"

무지개축제를 재미있게 즐기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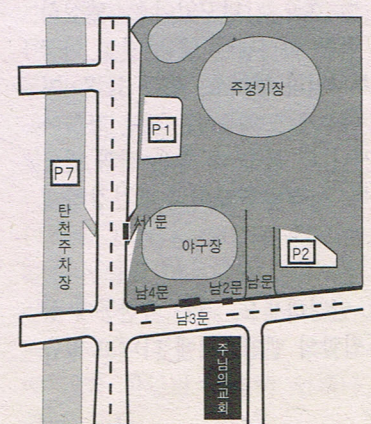
편안한 복장 - 청년1부, 1, 2, 3, 4교구는 흰색상의
청년2부, 5, 6, 7, 8교구는 적색상의
교구별 식사장소에서 점심먹기. 먹거리장터이용하기.
운동장의 놀이마당, 축제마당 자녀들과 적극참여하기.

주차장 이용하기

학교에서는 주차할 수 없으므로 종합운동장과 탄천 주차장에 주차합니다. 주차비(1일 3000원)는 교회에서 드리며 남문, 남2, 3, 4문, 서1문으로 진입주차하면 교회까지 5분거리입니다.



교구별 식사장소 (식수위치)



주차장약도